

서 평

장미영 | 여성문학, 여성작가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서정자, 『우리 문학 속 타자의 복원과 젠더』(푸른사상, 2012)

[서 평]

여성문학, 여성작가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서정자, 『우리 문학 속 타자의 복원과 젠더』(푸른사상, 2012)

장미영*

1. ‘여성’이라는 이름의 굴레

이 책의 필자 서정자 선생은 여성문학연구의 제1세대라 할 수 있으며, 박화성연구의 대가이고 근대여성문학 연구는 선생의 주된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 문학 속 타자의 복원과 젠더』라는 책제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 문학사에서 타자화 되고 배제되었던 여성문학 전체에 대한 문학사적 복원과 작가로서 충분히 문학적 평가를 받지 못한 개별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학적 위상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인 서정자 선생은 문학연구의 선행 과제로 작품 전모를 파악하고, 작가관련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 매진하였으며 이로써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은 정확한 문학연구를 위한 토대의 마련이자 작품분석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연구과정과 속도는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선생의 연구 성과는 후속연구의 정밀성을 높이고 후학들에게는 기본 자료의 확보라는 혜택을 남겨주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예전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음

* 한성대학교 강사

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의무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성이 집안일과 바깥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 인양 경계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도대체 남성과 여성의 본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따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러한 구분에 여성이 동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사회적 전통이고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이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희생되고 배제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굳이 전문자료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 여성의 삶도 이렇진대 근대문학 초기 여성문학가에게 가해진 억압과 강요된 배제는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이 작가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해서 온전히 작가의 경험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가의 경험과 의식은 직조의 날실과 씨실처럼 교직되어 문학에 스며들어 작가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를 앞서 간 근대문학 제1세대 여성작가연구는 그들의 전기적 사실과 궤를 같이하여 연구되었다. 그녀들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 이해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학작품을 전기적 사실로 귀결시켜 문학적 독자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근대문학 초기 작가연구는 전기적 사실을 통해 당시 창작 동기와 배경, 작가의 의도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유용할지 모르나 그것을 단순 대입시켜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책은 ‘개별 작가와 작품의 발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자세히 읽기’를 통해 개별적 현상들을 관찰하여 이를 종합하고 일반화’(35면)¹⁾ 하여 여성문학이론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한다. 그녀들에 대한 사소한 자료 하나 하나는 그녀들의 문학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단서가 되고, 감추어진 맥락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된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문학을 통해 규

1) 이 책 본문 인용은 괄호 안 인용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명된 연구방법론의 정립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여성문학 전망에 대한 제언을 2부는 김명순과 나혜석의 문학을 타자화 징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3부는 여성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강신재, 지하련, 강경애, 김말봉의 작품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4부는 임옥인, 이석봉, 이규희, 손소희, 한상운 작품을 통해 여성의 자기 서사화 방식과 타자윤리학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작가와 작품을 ‘자세히 읽기’를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의 연결선상에서 확장하거나,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각 작가의 문학적 완성도와 여성문학 일반의 문학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의 순서는 책의 순서를 따르되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자 한다.

2. ‘여성’의 타자화, 축출과 배제

우리 근대 문학 초기 여성문학가는 가십의 대상이었으며, 그녀들의 앞선 의식과 행동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들이 선택한 삶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낯선 비판의 잣대는 더욱 정밀하게 그녀들의 삶을 옹죄었다.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고 인정받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문학을 하고 예술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은 용납되기 어렵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다. 누구누구의 딸, 아내라는 이름은 그녀 자신을 주체로 호명하지 못하고 타자화 하였다. 타자화 된 그녀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이해됐으며,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가해진 억압은 제정신으로 견뎌내기 힘든 것이었다. 이렇게 경험하는 삶과 추구하는 삶의 괴리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여성만의 글쓰기 방식을 낳았으며, 이는 여성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로 문단에 등장한 김명순의 삶과 문학은 우

리 근대 문학 초기 여성작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여성이, 여성작가가, 여성문학이 어떻게 타자화되고 축출 배제”(99면)되었는지 보여준다. 근대 최초의 현상문에 당선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실의 딸이라는 태생적 콤플렉스와 매체로 인한 오해와 나쁜 평판”(104면)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1924년 11월 김기진이 『신여성』지에 쓴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은 김명순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를 결정짓고 작품발표 마저 봉쇄하고 말았다. 예술가적 소양과 성취가 있었지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 그녀에 대한 평판은 과거 한 시절이 아닌 일생 내내 그녀의 삶을 통제하였다. 일본 유학시절 받은 콜론타리즘의 영향은 정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명순은 결국 조국을 등지고 일본에 남아 생존을 위한 글쓰기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망명자로서 삶은 김명순 문학을 “대항문학”(135면)으로 명명하게 하였으며, 여성작가의 타자화 된 삶이 문학 활동에 미친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순과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나혜석의 경우 문학은 물론 미술 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겼는데, 문학과 미술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것은 나혜석의 예술세계를 문학과 미술을 나누어 고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된 해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혜석이 남긴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각각의 예술적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나혜석이 예술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미술 감각은 생동감 있는 묘사적 글쓰기로 문학에 반영되었고, 문학의 열정은 미술의 색채로 드러났다.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평가는 그림, 빛과 색채의 연결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었으며, 그녀가 추구한 후기 인상파적 성향은 문학에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문학과 미술 이어 읽기를 통해 밝히고 있다. 『경희』의 여주인공 경희의 미숙해 보이는 행동과 인물간의 관계 또한 그녀가 “일본 미술 학교 유학시절 영향 받은 『세이토(청탑)』의 사상, 백화(白樺)파의 영향과

관련”(165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예술을 통해 사람이 되려했던 나혜석의 사상은 예술과 여성해방을 지향”해 갔다고 한다.

나혜석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예술적 기분을 깨달을 때”²⁾라고 하였다.(139면)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삶을 행복으로 느끼고 추구했던 나혜석의 인생은 순탄할 수 없었다. 어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예술가이기를 열망했던 그녀의 소망은 자유분방한 성격, 이혼, 연애의 실패, 여성의 대외활동을 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상처받고, 행려병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종말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10년대에 국권회복을 고민하는 소설을 쓴 유일한 작가”(187면)라는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흔치 않은 세계 일주와 파리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기와 그림을 남겼지만 그녀의 불행한 인생은 그마저도 예술적 가치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고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던 선구자 나혜석은 ‘여성’이라는 굴레 벗어던지지 못하고 ‘여성’에 갇히고 말았지만 예술적 열정은 문학과 미술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나혜석의 문학과 일본체험』은 일본에서의 나혜석연구 성과와 의미가 드러난 도쿄 심포지엄 참가기이다. 일본연구자들의 꼼꼼한 자료 수집과 학문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국문학을 전공으로 택하는 후진이 없어서 문학연구 계승이 어렵다는 전언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근대문학 초기 여성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작가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몇몇 작품에 국한된 작품연구를 뛰어넘어 종합적인 고찰과 문학적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이중 김명순과 나혜석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근대문학 제1세대 여성작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시대적 산물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진 폭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들에 대한 작가로서 작품에 대한 평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2) 나혜석, 『이혼고백서』, 『삼천리』, 1934.9. 서정자 편, 『(원본) 정월 라혜석전집』, 국학자료원, 2001, 473면 재인용.

않았으며, 소문과 오해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파괴하였다. 피해한 그녀들의 경험과 상황은 문학에 투영되어 고백, 자기변호, 계몽, 분노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결국 그녀들의 문학은 당대 사회에서 ‘여성’ 작가로 겪어야 했던 문단진입 장벽과 교묘한 배제와 축출의 방식을 보여주고, 저항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3. ‘여성’의 체험과 자기의 서사화

근대문학 초기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시대에 대한 항변과 분노의 표출로 여성의 자기 서사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여성작가의 문학은 각각의 개성적 글쓰기 방식을 통해 여성문학의 독자적 영역을 확장해 왔다. 시대상의 변화와 작가 개인의 문학적 의식이 변모하면서 그녀들이 추구하는 문학세계도 다양화 되었다. 끊임없이 시대와 교호작용하면서 작가적 개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서사전략은 여성문학의 변화는 물론 우리 국문학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근대문학 제2세대 대표 여성작가인 지하련과, 강경애는 제1세대 여성작가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두 여성작가의 공통점은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민중적 차원에서 서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련의 경우 여성문제소설 『결별』, 『가을』, 『산길』을 통해 신여성과 자유연애 사조의 유입으로 인해 억압된 슬픈 ‘아내’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작품은 지하련 자신의 체험을 객관화 하여 소설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채택된 서사전략은 자기의 내면과 입장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 “인물시점의 다양화와 보여주기”(258면)방식이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방식은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작가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구어체의 사용, 감추면서 드러낸 침묵의 목소리”(258면)를 통해 작가적 목표와 개인적 고발을 동

시에 성취하고 있다. 지하련의 ‘아내의 서사’는 신문물의 유입, 신여성, 자유연애를 표방하던 시대의 침묵하고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내들의 속내를 보여주며 남성의 허위의식과 아내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하련이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부부갈등의 발생과 아내의 입장에서 작품화하고 있다면 강경애의 경우는 “성실한 관찰과 묘사로 민중의 생동감 있는 삶, 대중의 근대성, 일상성, 공간성”(272면)을 “극도로 궁핍한 농촌과 도시의 체험, 간도체험, 여성으로서의 체험”(272면)을 바탕으로 소설화 하고 있다. “체험에서 얻은 현실을 정직하게”(272면)그리고 있는 강경애의 소설은 사상보다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경애의 궁핍체험은 빈궁문학으로, 현실체험은 경향소설, 간도체험은 항일 서사로 서사화 되었다. 체험을 우위에 둔 소설 창작방식은 사상성의 결여로 지적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체험이 바탕이 된 문학은 소설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탁월한 감각적 묘사로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민중의 생동감 있는 삶의 묘사는 관찰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강경애의 민중에 대한 애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말봉연구는 “대중소설내지는 멜로드라마적 성격의 소설로 규정하고 김말봉 문학세계의 전모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297면)있는 실정이다. 김말봉연구가 일천한 것은 대중소설가라는 점 이외에도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가 남성작가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부분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문학사적으로 대중소설에 대한 문학적 폄하는 김말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김말봉에 대한 연구는 지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작가에 대한 생애연구와 1922년부터 쓴 글을 통해서 작가의식의 형성을 살핀 후 작품을 읽지 않아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말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1922년 무렵부터 쓴 김말봉의 글을 통해 그 시기 아나키즘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아나키즘 사상에 따라 ‘대중’에 애정을 갖고 ‘대중’을 위한 소설가가 되었다”(306면)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작가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선행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김말봉 문학에 대한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직 작품 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학적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김말봉 문학의 사상과 사회의식, 주제탐색을 통한 문학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로는 충분하다.

위에서 언급한 작가들과 활동시기에 다르지만 여성작가 특유의 섬세한 묘사와 미적 감각을 드러낸 강신재의 글쓰기 방식은 “이미지로 짠 태피스트리로 강신재에 있어 소설은 짜는 것”(214면)이라고 정의한다. 필자는 “강신재에 있어서 현실은 자연이나 일반사물과 같이 객관적 상관물로서 무너로 배치하여 소설, 예술품을 완성”(214면)하고 있다고 한다. 작품연보나 작가에 관한 자료정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작품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글쓰기방식은 이미지의 재구성으로 “자아와 세계의 미적거리를 유지하고 합일이 아닌 분리 내지 대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229면)고 한다. 강신재의 장편소설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째 좌절된 사랑에 관한 탐구(231면), 둘째 해방공간, 생명을 담보로 38선을 넘어 왕래하며 양쪽의 삶을 조망하고 있는 현장 증언의 소설(237면), 셋째 역사소설(237면)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은 주제는 다르지만 장편이나 단편 가릴 것 없이 강신재 소설의 글쓰기방식은 “주인공과 세계를 분리하여 시대의 리얼리티와 작가의 이미지앨범을 만들고 있다”(239면)는 점은 공통적이다.

강신재는 “결론을 유보하는 서정소설의 특성을 나타내며, 어떤 주제로 소설을 만들기보다 작가를 둘러싼 세계를 이미지로 그려 명암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240면)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여성작가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의 경험이 문학적 바탕이 된다는 점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하고 있으며, 주제와 연결시키지는는 각 작가의 문학세계를 규명함에 있어 유효한 연구방법론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작가의 경험은 ‘여성’의 특수한 상황, 사회적 인식 등과 맞물려 다르게 변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은 근대문학의 결을 촘촘하게 하고, 문학적 오독을 줄여주는 토대가 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4. ‘여성’의 성장과 주체의 복원

2008년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 더 이상 여성학 혹은 ‘여성’문학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회의적 반응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남녀평등지수는 기대이하이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종가를 중심으로 가부장제의 허위성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심윤경의 『달의 제전』⁴⁾은 왜 아직도 ‘여성’을 논의해야 하는지 여성문학연구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심윤경의 작품을 “우리 전통의 계승과 부정이라는 이중서사전략으로 전통복원과 함께 가부장제를 고발”(42면)하고 있으며 “적의 무기로 적을 치는 바이링궐의 전략”(42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여성중심주의 시각은 남성중심주의를 전복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오히려 “지배적인 개념과 맞붙어 싸우는”(68면) 글쓰기 전략으로 젠더문학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진단한다.

여성문학연구의 젠더화는 여성중심주의 문학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 문학연구의 전복을 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여성작가의 자기서사화는 자신을 주체화 하고 직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자기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게 한다.

임옥인의 『일상의 모험』은 자기를 서사화 하고, 자기를 탐구하고 있다.

3)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은 135개 국 중 108위로 조사되었다. <동아일보>, 2012.11.30.

4) 심윤경, 『달의 제전』, 문이당, 2004.

주인공은 자신의 고통을 가감 없이 토로하는 가운데 독자를 주인공에 몰입시키고 공감하게 한다. 임옥인의 정직하고 직설적인 인물의 창조 서사 전략은 독자와 진정성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작가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석봉의 『빛이 쌓이는 해구』의 혜영은 남편의 비열함에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 내면 탐색, 자기 성찰을 향해 있다. 혜영이 분노 대신 구원을 선택한 것은 1960년 여성소설의 한 특성이며, 윤리적 해석으로 드러난 이석봉 소설의 문학적 특성이다. 작가가 치열한 현실 대결이 아닌 종교적 귀의를 선택한 것은 일면 여성주의의 퇴행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석봉이 탐색하는 윤리는 제도적 차원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탐색을 통해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윤리의식은 개별 작품에 국한된 성격이 아닌 이석봉 문학 전반을 관통하는 문학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대결과 파국이 아닌 종교적인 세계, 구원의 희구는 이규희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 시기 여성 소설에 드러난 구원의 서사는 여성성장과 관련이 있다. 남성이 아버지 세계의 편입을 통해 성장이 완성된다면 여성의 성장 서사는 여성이 주체를 회복하고 내적 성숙을 통해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젠더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지만 그녀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결국 주체를 회복함으로써 독자적인 목소리를 찾게 된다.

여성, 여성작가, 여성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역사는 장구해서 일시에 소거되거나 쉽게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의 제시는 오독과 편견을 바로잡는 바른 잣대가 될 것이며, 더 이상의 오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서정자 선생의 『우리 문학 속 타자의 복원과 젠더』는 국문학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문학에 대한 폄하와 여성작가의 문학성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 선생의 꼼꼼하고 성실한 연구태도와 연구 방법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여성문학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다.